다시 부처님 시대 꿈꾸는 영원한 전법사



김재영 법사는… 1938년 마산에서 태어났다. 마산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이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김동화 박사의 지도로 석사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불교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동방불교대학 교수로 '현대포교론' 등을 강의해왔다. 1970년 동덕여고 불교학생회 창립을 이끌었고, 현재까지 청소년 · 청년 · 대학생 중심의 '청보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부터 국제구호단체 '자비수레꾼'을 설립(공동대표)하여 캄보디아 북부 오지 뗍뽀디봉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세우고 500여 명의 어린이 학교보내기운동을 전개해왔다. 2011년 청보리순례단을 이끌고 인도의 8대 성지를 순례한 후 부처님의 생애를 영상작품화한 '붓다 석가모니(10부작)'를 제작해 새로운 전법(붓다 스터디)을 펼치고 있다. 2006년 대원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우리도 부처님같이〉, 〈초기불교개척사〉, 〈화엄코리아〉, 〈붓다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 등이 있다.

테마人 **김재영** 청보리회 법사(80)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로 바뀐 삶

모친, 태몽으로 약사여래 친견

청소년기 사찰 불교학생회 활동

사춘기 죽음에 대한 공포로 방황

〈법구경〉으로 죽음 공포 벗어나

〈법구경〉 등 본격 불교공부

"부처님 당시의 초기 불교를 이끈 것은 '빠리사'였다. 빠리사는 왕족과 무사, 지식인, 상인, 사문, 거사 등 시민들로 구성된 수행공동체다. 빠리사는 부처님도 함께 무릎을 맞대고 둘러(pari) 앉아(sa)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며 함께 개척해가는 자유평등의 공동체다. 부처님은 빠리사와 함께 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논의했으며, 빠리사는 각종 불사를 지원하고 승단을 외호하며 수행을 이끌었다. 빠리사는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隊商)을 조직해 세계 각국에 불법을 전파하기도 했다. 부처님의 불교가 널리 퍼지고 지금까지 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빠리사의 역할이 컸다. 오늘날의 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불교와 다르고, 좀 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때와 같은 '빠리사'가 없기 때문이다. 빠리사를 복원하는 일이 불교의 원형을 복원하는 길이다." 1970~1980년대 청소년 불교운동을 일으키고 '청보리' 운동으로 포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김재영 법사는 부처님의 시대를 다시 꿈꾸고 있다.

다시 부처님의 불교로…'붓다 스터디'

다시 부처님 시대의 불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김 법사는 누누이 강조한다. 지금 우리의 불교는 부처님이 하셨던 불교와 많이 다르다고. 부처님의 불교는 길 위에서 몸소 실천하신 불교라고. 그래서 김 법사는 오랜 세월 외쳐왔다. '붓다의 불교 부흥'이다. 과연 지금의 우리 불교는 2500년 전의 불교와 진정 어긋나 있는 걸까. 어긋나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어긋나 있는 걸까. 그리고 돌아갈 방법은 있는 걸까.

늘 부처님 시절을 그리워하며 사는 김 법사는 2011년 1월 청보리순례단을 이끌고 인도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김 법사와 도반들은 부처님의 발자국 위에 발자국을 더하며 잠시나마 부처님 시절을 더듬어본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을 그리며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라까지 부처님의 8대 성지를 걸었다. '순례'였다. 길 위에서 대중과 만났던, 그렇게 이 세상에 왔다 가신 부처님을 그리며 김 법사는 걸었다. 김 법사는 동행한 사진작가를 통해 순례의 과정을 사진에 담아왔다. 그리고 사진과 추가 영상을 더해 10부작 영상물을 제작했다. 제목은 '붓다 석가모니'다.

2014년 10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붓다 석가모니'의 시사회 겸 '대중스터디'가 열렸다. 김 법사는 새로운 전법운동 '붓다 스터디'를 시작한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영상은 부처님 시대의 불교를 함께 공부하는 교재였다. 앞서 9월 장충동에서 첫 시사회와 대중스터디를 열었고, 두 번째 대중 스터디를 통해 본격적으로 '붓다 스터디'를 대중에게 알렸다.

"불교의 중심은 부처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불교의 중심엔 왠지 부처님이 없습니다. 참선, 위빠사나, 염불, 간경 등 방편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방편들은 방편대로 분명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만 부처님이 중심에 있고 난 후에 그 방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붓다 스터디'는 부처님의 불교를 복원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붓다공동체운동'이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김 법사는 "부처님 시대의 불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빠리사의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 그것으로 비롯되는 자발적 동기, 무한한 창의, 상상력, 개척정신 등 대중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부처님 열반 후 빠리사는 점점 소멸했고 그 결과 세계불교가 여러 가지로 오류를 범하고 모순 속에 있게 됐다"고 말한다. 그 오류와 모순 속에서 우리의 불교 또한 부처님 시대의 불교에서 어긋나게 됐다는 것이다. 김 법사는 '빠리사의 부흥'이 부처님 시대의 불교로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부처님 말씀에 귀의한 이들이 서로가 모여 빠리사를 만들고 '붓다 스터디'를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어긋난 불교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법사는 그것을 '붓다 빠리사 개척운동'이라고 말했다.

김 법사는 '붓다 스터디'와 함께 '붓다 개척자 학교'를 열었다. '붓다 스터디'는 "부처님 공부하자"는 것이고, 붓다 개척자 학교는 부처님 시대의 불교를 온전히 열어가기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다. 1년 과정을 수료하면 '개척강사'가 되고, 2년 과정을 수료하면 '개척법사'가 된다. 지금까지 19명의 개척강사와 6명의 개척법사를 배출했다. 그리고 현재 12명이 법사와 강사의 과정을 밟고 있다.

탯줄에 깃든 불연

김 법사의 깊은 불심과 쉼 없는 원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그 설명이 충분할 듯하다. 지금의 김재영은 지금의 김재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금의 김재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1938년 마산에서 태어난 김 법사의 탯줄에는 미륵부처님과 약사여래의 이야기가 있다. 김 법사는 모친의 간절한 기도 끝에 이 세상에 왔다. 독실한 불자였던 김 법사의 모친은 늦은 나이에 자식을 갖기 위해 부처님 전에 일심으로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기도 끝에 태몽을 꾼다. 김 법사의 모친은 꿈속에서 자신이 매일 기도하며 보았던 장춘사의 미륵불을 보고 난 후 김 법사를 가졌다. 훗날 김 법사는 모친이 꿈에서 보았다는 미륵불을 보기 위해 장춘사를 찾았다. 하지만 김 법사의 모친이 보았다는 미륵불은 약사여래였다. 김 법사는 입이 트이고 귀를 열면서부터 자신의 태몽에 대한 이야기를 모친으로부터 자주 들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명대 선종의 특징

B5
문화
특별전 '신라를 다시 본다'

B6
학술 · 문화재
대행선연구원 제2회 계절 발표회